

아카데미즘과 실용성 깃든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낸 국문학자 정민,
박수밀, 박동욱, 강민경

2년 전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정민 교수는 휴머니스트출판사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팀을 구성해 새로운 차원의 '한자 교과서'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편집부에서 들고 온 기획서에는 그해에 출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소개와 더불어 생활과 문화를 함께 읽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한자 교과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컨셉트가 담겨 있었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자를 전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또 한자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정 교수가 생각하기에 한자교육은 아시아의 문화를 읽어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표의문자인 한자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두 개 이상의 자수가 만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가령 관습적으로 써오고 있는 '창피鼎披'라는 말은 '연다'라는 뜻의 창鼎과 '풀어 헤친다'는 뜻의 피披가 만나 생긴 말이다. 요즘 남자가 '남대문'을 열어둔 채 걸어다니다 뒤늦게 발견하면 창피함을 느끼듯이 과거에 허리띠나 옷의 웃고름을 풀어 헤친채로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짓으로 여겼던 것이다.

정민^{외 3명}



왼쪽부터 강민경, 박수밀, 정민.
박동욱씨는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사소한 예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한자를 알면 기본적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덤으로 상상력과 사고력, 어휘력이 놀랍도록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한자교육은 아직도 천자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천자문》을 절대로 읽혀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천자문》을 보면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르 황으로 읽지요. 천지를 말하다가 갑자기 색채로 넘어가고, 다시 우주를 말하다가 느닷없이 크기로 넘어가는 등 서로 어떤 연관성도 없어 개념이 혼란스럽고 계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무턱대고 외우기만 하는 한자교육은 학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현재 EBS 한자교양 프로그램 〈한자야 놀자〉 진행을 맡고 있는 박수밀 씨와 한서대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연구원으로 2001년 《리빨류》 가을호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한 박동욱 씨, MBC 창작동화상, 한국안텔센그림자상 대상 등을 수상한 강민경 씨 등 세 명의 제자를 불러보았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한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글쓰기 능력을 인정받은 제자들이었다. 각 주제별 표제어를 정해 그 표제어에 맞는 원고를 각자 쓰고 이렇게 모인 원고를 박수밀 씨가 원고수준이나 방향을 조정한 후 마지막으로 정 교수가 감수해 책을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견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었다.

“2002년 5월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1년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이 진행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해 겨울 경제5단체가 계열사에게 입사 시 한자시험을 치르도록 권고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한자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 교수 팀의 작업은 진행여부를 놓고 다시 고민해야 할 정도로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 “가도 가도 하자면 끝없는, 산 넘어 산의 고초”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저희가 의도한 계열화되고 계통화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단어와 예를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제별로 적게는 10권 이상의 참고서적을 소화해야 했죠. 또 갑골문이 완벽히 해석되어 있지 않다보니 열이면 열, 책마다 자원(字源)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색이 ‘교과서’인데 그렇다고 불명확한 정보를 실을 수도 없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도 어려웠죠.” (박수밀)

동화작가로 MBC 창작동화상, 아이세상 창작동화상, 한국안텔센그림자상 대상 등을 수상하고 여러 작품집까지 낸 강민경 씨는 자신의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원고를 수정당해야(?) 했다.

“저같은 경우 집필과정에서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제가 만족하는 원고를 써야 했고 다음엔 작업을 총괄한 박수밀 선생님의 콘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엔 더 까다로운

정민 선생님의 검증이 기다리고 있었죠. 공동작업은 그야말로 ‘나’ 보단 책을 위해 모든 것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만큼 독자를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2년 동안의 처절한 산고 끝에 나온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는 애당초 기획대로 계열화되고 계통화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책이 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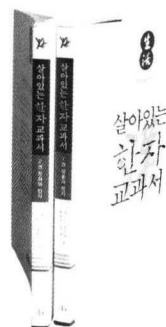
크게 일상 주변에서 익히 사용하는 생활한자를 주제별로 묶은 1권 ‘생활과 한자’와, 좀더 범위를 넓혀 인간의 사회, 문화와 관련한 어휘를 엮은 2권 ‘문자와 한자’로 나뉜다. 또 각권의 장마다 3,4개의 절을 두었고, 하나의 절마다 3,4개의 표제어를 선정했다. 이를 중심으로 소주제를 설명하고 소주제들이 모여 전체 주제를 이루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흥미로운 교양서를 읽듯 편안한 마음으로 읽는 과정에서 저절로 의미가 이해되고 어휘력이 향상되는 ‘신비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물론 한자를 외우려면 따로 시간을 내야 한다.

또한 각 장마다 소개되는 〈문자여행〉과 〈옛 그림 읽기〉 그리고 〈한자와 문화〉 등의 ‘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시리즈로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 외에도 장과 절의 앞에 12간지의 동물을 새긴 인장이라든가, 정민 선생의 장서 2,300권에서 뽑은 수많은 도판은 이 책을 더욱 기쁘시고 풍성하게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번 작업을 계기로 한자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해볼 생각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천자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아악편》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2,000자로 된 이 책은 계열화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재구성한다면 훌륭한 한자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이젠 대학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콘텐츠를 바탕으로 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카데미즘과 실용성이 결합된 고급문화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집단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문이라는 학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시대적 요구에 등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정민**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정민·박수밀·박동욱·강민경 지음 | 휴머니스트 | 1권 282쪽 2권 284쪽 | 각권 값 15,000원